

하나됨과 나눔

“ 광야로 나아가자.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자. ”
< 갈라디아서 1장 17절 >

- 다음 주일(21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어려운 중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대로 현장예배에 참석하시고, 이웃에게 나눔 열매는 가정별로 준비해 주십시오.
- 한상수집사(기쁜우리사랑방) 모친 장례식이 지난 9일에 있었습니다.

제 38 - 44 호
2021년 11월 14일

사랑방공동체

TK2000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새 천년”

(고린도후서 13 : 13)

* 고마움을 표해야 할 분들

나눔의 식탁 :

강단을 꽃으로 : 조향민 · 최신혜 집사 가정 (정해분 권사님 생신(미수) 감사)

주일 교회 승합차 운행시간 오전9시50분 의정부역 6번 출구 영풍문구 앞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사랑방공동체

1118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길 134-178
<http://www.sarangbang.org> 전화:(031)544-1615 FAX:(031)544-1618

기 관 : 공동체교회 · 공동체학교 · 생활공동체 · 부속기관
선교지 : 타지키스탄 대만 일본 요르단 중국

사 랑 방 은

주인이 거하는 방, 사람을 만나는 방,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바벨론 강가에서 or 다들 이불개고 밥먹어

전 세계적으로 k-문화가 많이 알려지고 주목을 받고 있는 시대가 되었다. k 드라마, k팝, k음식 등 문화를 접하게 되면서 한국을 오고 싶어하고, 한글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도 많아졌다.

우리나라도 70-80년대에 외국의 곡, 팝송을 많이 들었으며 좋은 곡은 번안 곡으로 한국 정서에 맞게 개사를 하여 부르기도 했었다. 코미디 프로그램에서도 개그맨과 개그우먼들이 영어의 한국 발음인 콩글리시로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들리는 대로 노래하면서 대중을 즐겁게 하기도 하였다.

몇 달전에 검색을 하다가 보니엠이라는 가수가 부르는 팝송을 듣게 되었다. 예전에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희화하면서 부른 노래였다. 그 당시에 그 노래는 “다들 이불개고 밥먹어~ 다들 이불 개고 밥먹어~ 왜~ 년~ 이불 안개고 밥안먹니~”라고 가사를 붙여서 개그의 소재로 삼았다. 이 곡의 원제는 ‘바벨론 강가에서’였다. 성경에 나오는 바벨론이 팝송에서 왜 나올까? 의문점이 생겨서 가사를 찾아보게 되었다. 성경말씀을 가사로 한 팝송이 이렇게 알려질 수도 있구나하면서 특이하기도 하고 새롭게 느껴지기도 했다.

성경말씀의 성경구절을 가사로 만들어 부른 것이 대중성을 띤다는 것이 신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보면 그만큼 기독교인의 수가 많았으며 미국 사회의 분위기가 기독교 문화권이였기에 가능하다. 그 물결을 타고 다른 나라에 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또 다른 영상에서는 광화문에서 나라를 위하여 모였다고 하면서 부르는 영상도 있었다. 이게 그 상황에 맞는가라는 의문점이 들었다.

지난 목요일 성서일기를 하면서 보니엠의 바벨론 강가에서 노래가 생각이 났다. 예전에 봤던 그 곡이 시편 137편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고 다시금 그 노래를 찾아서 들어보았다. 고난의 때를 약간 경쾌한 리듬으로 부르는

팝송을 통해서 리듬과 가사의 느낌이 사뭇 달랐다. 가사의 내용은 바벨론 강가에서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다는 내용이다. 이스라엘에서 수금으로 찬양을 하던 사람들을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아가 바벨론 강가에서 머물게 되었으며 그 악기로 바벨론 사람들을 위하여 연주하라고 하라는 요구에 하나님께만 찬양할 것을 다짐하는 내용이다. 이스라엘 멸망 후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는 하위계층이 아니다. 한 나라를 정복하고 포로로 데려가는 사람들은 그 나라의 중요한 사람을 포함한 지식인 층일 경우가 많다. 수금으로 찬양하였던 바벨론 강가의 사람들은 내용을 미루어 보아 이스라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찬양대다. 그 당시 성전에서 찬양하는 찬양대는 높은 수준의 사람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었다. 이스라엘로 언제 돌아갈 수 있을지 막막하지만 그 상황에서도 이방인을 위해서 연주를 하지 않겠다는 굳은 다짐을 한다. 자신의 손과 입을 저주하면서까지...

바벨론 강가에서 시온을 생각하며 울며 다짐했던 자들은 하나님을 위한 음악을 하겠다는 결단을 내렸다. 자기가 가진 재능으로 바벨론을 위해서 연주를 했다면 쉽게 살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그들은 편안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했다. 그 이후의 삶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평탄치 않았을 것이다.

어렵고 힘든 포로의 상황이었지만 시편으로 이 시가 남아있는 것은 그들은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만을 찬양하겠다는 믿음을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기록된 이 시는 시편으로 전해지고 곡이 붙어서 한 시대 많이 듣는 노래로 불리워지고 듣는 사람들도 즐겁게 듣고 말씀을 생각하게 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위해 믿고 다짐하며 따를 때 하나님께서는 위로와 회복의 길로 이끌어 주신다.

한주간의 말씀

먹을 때가 되어서, 보아스가 그에게 말하였다.

“ 이리로 오시오. 음식을 들시오.

빵 조각을 초에 찍어서 드시오. ”

룻이 일꾼들 옆에 앉으니, 보아스는 그 여인에게 볶은 곡식을 내주었다. 볶은 곡식은 룻이 배불리 먹고도 남았다.

< 룻기 2장 14절 말씀 >

<수요기도회>

성경 : 시편 136편

제목 : 인자하심이 영원한 하나님께 감사하자

인도 : 최기찬 전도사

찬송 : 301 569 588 331

1-3, 26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해석: 하나님은 참 하나님, 참 주인이다.

적용: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굳게 믿자(모든 신들, 모든 주).

믿음의 길을 버리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심이 영원히 지속된다.

4-22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4-9 창조자 하나님께 감사

10-22 세상의 주관자 하나님께 감사

해석: 세상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유일, 전지전능)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신 공동체를 구하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이끌어 가신다.

적용: 세상의 주관자,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성실하게 생활하자. 혼란스럽고 흔들릴 때 변하지 않고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자.

23-26 구원자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해석: 구원자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고 버리지 않고 먹여주심을 믿고 의지하자.

적용: 낙심되고 위축될 때 구원자 하나님을 의지하자.

하나님의 비전

어떤 일이 실재가 되기 전에 언제나 비전이 있습니다.

그 비전이 아직 실재가 되지 않았을 때 사탄은 우리를 유혹해 넘어지게 합니다. 이 유혹에 빠지면 그 비전은 실재가 될 수 없으며 그 비전을 가졌던 자는 비참의 골짜기로 떨어집니다.

“인생은 광맥과 같이 쉽지 않다네. 철은 어두운 광맥에서 파헤쳐지며 인생의 역경에 의해 빛어짐으로 사용될 수 있게 된다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우리를 골짜기로 데리고 가서서 그 비전에 맞게 빛기 시작하십니다. 이 역경의 골짜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고 포기합니다. 그러나 모든 비전은 우리가 인내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항상 미칠 정도로 급하지만 주님은 절대로 급하지 않으십니다. 비전의 영광의 빛 때문에 우리는 급하게 뭔가를 하려고 하지만, 아직은 그 비전이 우리 안에서 실재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골짜기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그 비전에 합당하게 빛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불과 창수를 지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신뢰하셔서 그 비전의 실재를 허락하십니다.

비전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로 그 비전에 맞는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 언제나 일해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 그분의 손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했으며 스스로 비전에 맞게 자신의 형상을 빚어보려고 애썼습니다.

비전은 공중에 떠 있는 멋진 신성이 아니라 당신이 어떠한 사람이 되는가에 있습니다.

그분으로 하여금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당신의 삶을 빛도록 하십시오. 그때서야 비로소 당신은 그 비전에 잘 어울리는 사람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정말로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있다면, 당신이 영적으로 낮은 차원에서 만족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결코 당신의 안일함을 허락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일공동예배

오전11시

인도자 : 정재훈 목사
설교자 : 권재만 목사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 초청의 말씀
- * 예배의 찬송
- * 기원의 기도
- * 기원찬송

시편 107 : 1-3
8

인도자
다함께
인도자
다함께

영광 영광

죄의 고백과 용서

- * 참회의 기도
- * 용서의 말씀
- * 신앙고백
- 고백의 찬송
- 공동기도
- 목회기도

누가복음 5 : 20

인도자
다함께
다함께
다함께
인도자

278

하나님의 뜻과 말씀선포

- 성경낭독
- 성가대 찬양
- 설교

룻기 2 : 3-16
620

설교자
사랑방

“ 이리로 오시오, 음식을 드시다 ” 권재만목사

의탁과 성김의 삶

- 의탁의 기도
- 응답의 찬송
- * 봉헌기도
- * 영광찬송
- * 위탁의 말씀
- * 강복기도

591

설교자
다함께
인도자
다함께
설교자
설교자

455(3)

* 표는 일어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배를 돕는 이들 안내 : 김중필 이현숙 / 봉헌위원 : 이현숙 / 꽃꽂이 : 김영화
반주 : 김영희 이근자 정다운 박민정 임은숙 안지운
 서진솔 석지인 옥대철

예 배

공동기도문

저희에게 식탁을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식사하기를 원하오니
지혜와 힘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리로 오시오. 음식을 드시다

보아스의 선행과 그의 식탁. 룻은 모압여자이지만 나오미와 함께 이스라엘로 들어옵니다. 그 시대의 약자들 중 가장 약한 자들인 과부 두명은 아무 기반이 없어 곡식 거두는 곳에 가서 이삭을 주웠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보아스는 룻의 사정을 살펴 이삭을 잘 줍도록 선의를 보입니다. 또한 보아스는 룻에게 함께 앉아 식사를 하도록 권하며 배부르게 먹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보아스가 보인 정의와 공의. 룻은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으로 올 때 방해하며 고통을 준 원수 이방민족 출신이었습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그의 믿음과 행동을 보았고 그에게 정의와 공의를 보여주었습니다. 보아스는 약자들을 위한 법을 지킵니다.[레23:22] 또한 룻의 어려운 상황을 배려하여 오히려 이삭을 뽑아 흘리게 명령합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이방 여인을 식탁으로 초대하고 무안하지 않도록 말도 걸고 만족스러운 식사를 하도록 도와줍니다.

식탁에서 드리는 감사의 고백. 보아스의 식탁에는 환대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가 받았던 하나님의 사랑을 재현하려 노력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식사의 자리에서 즐거움을 회복합시다. 또한 식사를 할 때 무시되는 생명들과 외면 받은 수고들을 기억하는 식탁을 마련합시다. 마지막으로 구조적 문제에 대해 생각하고 행동하여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변화시켜 나갑시다.

수요기도회 / 저녁 7시 30분 / 인도 : 정재훈 목사 / 기도 : 김중필 집사

< 사랑방공동체학교 소식 >

꾸러기학교

기온이 쑥 내려가고 첫 눈이 내렸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겨우내 먹을 김치를 담그는 김장을 꾸러기들도 해보았습니다.

월요일에 공동체 텃밭에서 자란 배추 여섯 포기를 뽑아 꾸러기들이 다듬었습니다. 역센 겉잎과 시든 잎을 떼고, 배추 잎 사이에 들어가 있는 낙엽 같은 것도 빼냈습니다. 그 다음 소금을 뿌리고 소금을 녹인 물에 배추를 담가 하루 동안 절였지요. 다음 날 물도 많아지고 소금 덕분에 숨죽은 배추를 볼 수 있었는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 퀴즈를 냈더니 나집사님이 물을 부었다고 답한 친구가 있어서 한바탕 웃었습니다.

이제 절인 배추를 잘 씻고, 조심조심 무와 갓, 대파를 썰어 볶니다. 김장 김치에 들어가는 열한가지 재료를 설명한 후 배추에 양념 속을 채웠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고무장갑을 낀 꾸러기들이 배추 한 잎 한 잎을 들추며 양념을 채우는 모습은 귀엽고도 의젓합니다.

가져온 통에 자기가 만든 김치를 담아 집으로 가져가는 꾸러기들 목소리는 커지고 어깨에는 힘이 들어갔습니다. 자신감이 올라가 의기양양해진 꾸러기들을 보니 이틀 동안 수고한 보람이 있네요. 꾸러기 식구들도 정성껏 만든 김치를 먹으며 함께 웃음꽃을 피우기를 바랍니다. < 교사 : 전향옥 >

어린이학교

월요일부터 내린 비는 수요일까지 내리다 그치다를 반복하고, 오랜만에 내린 비로 기온이 급격히 떨어져 유독 쌀쌀한 한 주를 보냈습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로 어린이들의 옷은 두꺼워졌지만 햇빛이 좋은 오후가 되면 삼삼오오 모여 지나가는 가을을 느끼며 노는 웃음소리가 멈추질 않습니다.

월요일에 있는 주제탐험 수업의 주제가 새로 시작되는 주였습니다. 이번 주제는 11월 감사의 달을 맞아 주제를 '감사'로 정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월요일 첫 시간 예배를 시작으로 오후에는 내가 감사한 제목과 이유에 대해 모둠별로 모여 생각해보고 함께 나누고 짧은 영상을 찍으며 마음을 소리내어

고백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번 주에는 직계나마 감사 찬양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토요일에는 어린이학교 학부모회의를 대면으로 모였습니다. 오랜만에 만나 반가운 마음으로 학교와 어린이 친구들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벌써 11월 중순을 맞으며 학교는 이제 학년말 준비를 시작하고 있는데 추워진 날씨에 건강이 안 좋은 어린이들도 있고 6학년 중엔 코로나백신 접종을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모두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주세요. < 교사 : 정다운 >

멋쟁이학교

비가 오면서 쌀쌀함이 한층 가속함을 피부로 느끼는 주간이었습니다. 월요일부터 비가 내렸고, 그 와중에 멋쟁이들은 공동체 김장을 오후부터 시작했습니다. 뿌리 마름병이 돌고 있었기에 배추 수확을 미룰 수가 없어, 백신 접종으로 1/3 정도가 등교하지 못한 상태더라도 시작했습니다. 윗 운동장에 새롭게 만들어진 투명 비닐 하우스에서 연신 배추와 열무가 들락날락 하고, 배추를 뜯고 씻고 절이고- 열무를 다듬고 써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하모니를 이루었습니다. 그 와중에 한대훈, 임종엽 전 선생님(이자 졸업생)이 깜짝 방문하여 간식으로 햄버거를 나누어주셨습니다. 모두가 열심으로 부지런히 손을 놀리고, 특히 고학년들은 그날 밤과 다음날 오전까지 열심히 작업을 도와 주어서 맛있는 김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갓 만들어진 김치와 뜨끈한 수육으로 점심을 먹는 멋쟁이들의 얼굴은 펍 행복해보였습니다.

목요일에는 오랜만에 뮤지컬 관람을 위한 외출을 나갔습니다. 불꽃리그 팀 별로 저녁을 먹으며 단란한 시간을 보내다가 예정된 시각에 뮤지컬 [요한복음]을 관람했습니다. 2시간이 넘는 긴 공연이었지만, 시간 가는줄 모르도록 배우들의 열연이 펼쳐졌습니다. 요한복음의 내용을 극으로 만든 것이라, 이해하기도 쉬웠습니다.

이제 학생회에서는 대본위원회가 꾸러져 종강발표회를 한참 준비하는 중입니다. 그 과정에서도 떠들썩하게 웃고 떠드는 것을 보면, 이 준비과정을 즐겁게 받아들이고 있구나 싶어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이번 주간도 백신 접종으로 늦게 등교하거나 도중에 귀가하는 멋쟁이들이 얼마 있을 예정입니다. 모두가 건강하고 그리고 활기차게 지내도록 기도해주세요.< 교사 : 이어진 >

그루 남자들의 번개팅

10월 어느 날 저녁을 먹고 남자들의 쉼터 아돌람에서 그루 남자들의 번개팅이 있었다. 그루터기에 있는 4명의 남자와 함께 살 준비를 하고 있는 1명 남자가 추계 전지훈련으로 속초 바다를 향해 떠나기로 했다. 말이 거창해서 추계 전지훈련이지 그냥 그루 남자들의 1박 2일 짧은 가을 여행이다. 전지훈련의 목표는 소박하다. “함께! 떠나자! 그리고 회 한 접시 먹고 오자!”

주일 오후로 D-day을 정했다. 어둑어둑해질 때쯤 가방만 메고 속초로 출발했다. 늦게 출발했지만 모두들 함께하는 여행에 들떴다. 배가 고팠지만 속초에서 회를 먹겠다는 집념과 이런저런 얘기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속초에 도착해서 횡감을 떠 숙소로 갔다.

숙소는 무림방 어르신들이 사용했던 곳을 이*신옹께서 잘 알고 있어서 좋은 가격에 정할 수 있었다. 싱싱한 회를 먹으면서 5명의 남자들은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남자들의 이야기기에 빠져서는 안 되는 군대 얘기를 달변가 이신 이*신님께서. 말이 별로 없으실 것 같은 나*주님의 옛날 사랑방교회 지킴이 이야기를. 우짜든지 많이 먹어야 할 김*동님이 마지막 회가 사라질 때까지 젓가락을 들고 있어서 (잘 드셔 주셔서) 흐뭇했던 기억. 이번 모임을 위해 계획을 세운 박*규님과 함께 섬세한 주방 서빙으로 속초의 아름다운 밤을 마무리했다.

다음날 숙소 앞 속초 해수욕장을 구경한 후 설악산의 단풍을 구경하기 위해 케이블카를 타기로 했으나 평일인데도 관광객이 너무 몰려 일정을 변경해 하조대로 갔다. 맑고 푸른 동해의 바닷물과 시원한 공기를 마음껏 만끽하면서 추억을 남기려고 연거푸 사진을 찍어댔다. 한계령을 넘기 전에 오색약수터를 방문해 모두들 오색약수를 한 병씩 넣어서 집으로 향했다. 함께하지 못한 분도 계셨지만 다음 동계전지 훈련에는 다함께 하길 바라며~

이런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물질로 후원해 준 그루터기 밥집의 마음도, 얼굴도 예쁜 아낙네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동계 전지훈련에는 반드시 부부 동반으로 함께 가서 그녀들을 섬기려 한다. 기대하시기 바란다.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가며 소확행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지만 여러 다른 사랑방에서도 계획을 세워 소확행을 이루기를 진심으로 바라본다.

그루터기사랑방 김중필 집사

<수요 정오기도회>

말 씬 : 마태복음 11장 25~30절

인 도 : 권재만 목사

기 도 :

1) 세계평화와 선교를 위한 기도< 코로나-19의 퇴치를 위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던 전염병이 전세계적 노력과 백신접종으로 점점 퇴치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모두가 의료적 혜택을 받고 전염병이 퇴치되도록 기도합니다.

2) 교회갱신과 공동체를 위한 기도<예수원 공동체를 위한 기도>

(1) 중보기도의 사명과 하나님나라를 세워갈 예수원 사명자들을 보내주시길.

(2) 5월부터 시작될 77기 지원생들이 주님 안에서 성장하고 하나님 더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3) 예수원에서 시작된 중등홈스쿨이 하나님 안에서 공동체의 삶과 신앙 그리고 지식을 잘 전달하여 하나님의 사랑받는 귀한 자녀로 가르칠 수 있는 학교 되도록 기도합니다.

3) 지역사회와 우리공동체를 위한 기도<어르신들과 아이들을 위한 기도>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고열과 전염병으로 고생하지 않도록,

특히 무림 어르신들과 접종에 민감한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 생활공동체 소식 >

지난 주는 공동체 김장이 있었습니다. 원래 다음 주가 예정이었으나, 갑작스러운 배추뿌리 마름병 때문에 더 시간을 늦출 수가 없어서, 월,화 이틀에 걸쳐서 공동체 김장을 담그었습니다. 멋쟁이 학생들과 선생님들, 생활공동체 식구들, 주방 식구들이 한데 어우러져 힘을 모아 함께 일하니, 일할 맛이 납니다. 서로 일을 도우려는 분위기에 한층 더욱 신이 났습니다. 월요일에는 새벽부터 비가 주룩주룩 내려서 걱정을 한가득 했었지만, 일하는 때에는 비가 뚝 그쳐서 모두 즐겁게 일할 수 있었습니다. 일기를 주관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멋쟁이학교는 목요일에 서울로 뮤지컬 관람을 다녀왔습니다. 코로나 정책이 바뀌면서 활동의 폭을 조심스럽게 늘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언제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의하며 다니고 있습니다.

토요일에는 오전부터 예배준비를 했습니다. 주일에 참여할 식구들을 기다리며, 의자를 놓고 하나하나 닦으면서 많은 분들이 자리를 채워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이제는 예배도 교회생활도 모두 회복되어 잊어버렸던 일상을 다시 찾으면 좋겠습니다.

< 정재훈 목사 >